

사설

민족의 영원한 등불되라

—동국대 개교 90주년에 부쳐

5월8일로 종립 동국대학교가 마침내 개교 90주년을 맞이한다. 개교의 물결이 한창 밀려들던 1906년 동국대는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신세대 선진교육의 도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찰의 정재를 연합하여 명진학교로 개교되었다.

그동안 일제의 점령기와 한국동란의 난국을 겪으면서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전통민족문화와 선진 과학의 융화를 이루며 순수한 민족사학으로 성장했다.

90년의 성상을 지나는 동안 10만여 동문이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신념과 정의로 인성을 다듬고 학문을 연마하였고, 나아가 민족사민간 해방운동선사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 문필가, 정치인, 경제인, 산업일꾼들이 배출되어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동국대학의 전통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어 1600여년을 지내오는 동안 민족정기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대학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과 동시에 민족정신의 양양이라는 점을 짚어볼 때,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은 물론 2천만 불교도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하나같이 동국대 발전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서울과 경주의 양 캠퍼스에 인문·사회·자연·예능·한·양의와 부속병원을 갖추고 비약적인 발전의 도상에 서있다. 지난 95년도에는 과격적인 교육개혁을 시도하여 현재 실행단계에서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국대학의 교육계획안은 신교육계획에 획기적인 대학교육의 전환점을 제시하여 한국교육발전에 기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있다.

학교측에서 발표한 개교 100주년을 앞둔 계획을 보면 불교의 자비관을 바탕으로 정신문화는 물론 생명과학과 환경공학 첨단 컴퓨터, 영상 미디어 방면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동으로써 인간의 생활을 앞서 이끌어가는 학문분야를 중점 양성하며, 자연과학 캠퍼스를 건설하여 첨단 연구시설과 쾌적한 학문센터를 건설 중에 있다. 또, 수도권에 불교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자비보시의 사상이나 인간의 병고를 치료하는 복지사업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영원이 편히 쉬 수 있는 영탑사업도 시도하고 있다.

한동안 일제의 기간을 보내던 동국대학교가 종립대학으로 신심과 기도, 학덕과 용기로서 힘차게 개혁과 발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교계는 물론 다 교육계에서도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 민족종교인 불교의 재단이다. 교수와 직원은 학교의 설립취지를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학문 연구와 교수 및 학교 발전에 적극적인 주인의식으로 대차대반 우후한 영재교육의 효과는 백배 발휘될 것이다.

한국의 대학 가운데 세계화의 대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학으로 민족 전통사상에 입각한 교육의 산실인 동국대학교가 당연히 주목받을 것이다.

차제에 설립자인 조계종단과 2천만 불교도는 동국대학의 발전에 환희심을 내어 물질양면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학의 찬란한 빛이 민족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억압의 세계에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산실이 되어 후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사찰防災

최근 수행도량인 법당이 불타고 성보가 도난당하는 등 사찰미다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목사가 법당내의 불상과 명화를 훼손하는 등 이교도들의 훼손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서의 재난에 대한 대비는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찰의 재난방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30톤 물탱크·방염벽등 보호시설 완비 지난 4월 22일 방화사건 피해 최소화

화계사 재난예방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 대한 방화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화계사가 30톤 분량의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재난 대비에 적극 나섰다.

화계사는 1618년(광해군10) 전 소되고, 1974년 대웅전 우측 관음전이 화재로 손실되는 등 화재피해는 물론 다 교육계에서도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되는 화재로 대웅전과 종각 문이 손실됐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는 법당(국제선원) 벽의 방염처리 덕분에 전소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화계사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들을 오래전부터 구비했다. 94년에는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때 미리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막았던 경험도 있다. 사소한 곳에 신경을 쓰는게 아니냐는 만류와 반목을 사기도 한 최근의 상황으로 미뤄볼때 화계사의 이

스프링쿨러·소화기·내진설계등 갖춰 문화재 보호차원 지진대비 훈련 실시

日사찰 모범사례

일본사찰은 우리의 경우처럼 목조건축물이 많아 화재와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불이 나면 즉시 예방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치와 방염제 시설, 사찰내 소방기구, 훈련 등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소화기 배치와 소화전 시설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찰에서 갖추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찰이나 문화재 사찰에서는 고가품 소화장비인 할로겐 소화설비까지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사찰마다 화재 및 재난대비가 철저한 것은 지역적으로 지진 등의 재난이 많은 것에 기인하지만 국민들의 문화재 보호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국민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 참배객은 물론 관광객은 사찰 출입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비상연락 체제와 소방감사가 철저하다.

같은 재난 사전예방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불사를 위한 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법당 벽의 방염처리, 물탱크 설치 외에도 화계사는 수화기의 보강, 소방교육, 도로의 확장(소방도로), 개천에 가로등 설치, 경연처리 덕분에 전소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또 화계사는 청원경찰 2명과 사장이 2인1조로 구성, 밤 10시부터 사시에불이 마치는 새벽 5시까지 야간 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등 환경의 훼손방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찰 소방대의 경우 주지스님이 소방대장을 맡고 사공스님들이 각 건물과 소방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지역인만큼 재난구호 활동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찰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소방대비 훈련과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과 함께 화재 및 지진대비에 대한 강의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사찰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사를 시작할 때부터 소방과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시설과 내진설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화재보험 등도 가입해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



◇조계종 제 2교구본사 용주사는 지난 1일 상반기 중요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대피, 중요문화재 반출 및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다.

사찰 화재·도난 「무방비」

최근 사찰들의 잇단 화재 등 해마다 증가하는 방화와 도난 사건으로 인해 예방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찰의 경우 일단 화재와 도난사건이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 말 그대로 치명적이다. 특히 수천년동안 이어온 문화재급의 재산이 한순간에 전소된다는 점에서 더

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지방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도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구책이 요구된다. 성보문화재의 경우 자체 유물전시관을 마련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지역별로 본사급 사찰에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CCTV 설치도 도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찰의 손실 폭을 최소화하고 수행도구의 도량으로서 빠른시일내에 복구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가입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

거의 목조건물 소방시설 절실 성보도난 대책·보험가입 필요

목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위해 사찰은 화재와 도난사건을 대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호스, 노즐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로서는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시설, 스프링쿨러 등이 있고 자체적인 방화·소방반을 편성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훈련을 생활화 해야 한다.

성보도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는 사찰이 대부분 목조건물이고 화재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기피하고 사찰측도 장기보험(5년 만기)의 경우 적어도 매월 70여만원의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법규상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이 3백평이상일 경우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고 6백평이상일 때 자동화재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뿐 소규모의 사찰은 해당 법규가 없어 자체적인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화재·도난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대만화



종말론이 다시 오려나

목어

신문보기가 무섭다. 세상이 무서워서.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하루도 쉬지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 사망'을 받았을까. 그것도 우연히 만난 사람을 피어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으니 그게 어디 사람이로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인가. 고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의 주부를 살해하고 통장에서 2천여만원을 인출한 30대 남자가

잡혔다. 거액의 대우컴미션 혐의로 은행장이 구속됐다. 15대 국회 무소속 당선자 영입작업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눈가려 보지 않고 귀막아 들고 싶지 않은 비리·비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 나라안이 온통 썩고 병든 느낌이다. 그래서

병든사회 고치는 '약'

부처님께서는 인간세상을 화택(火宅)이라고 하셨나보다. 그러나 날로 거세지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은 바라보면 그저 참답하기만 하다. 인간마을의 황폐화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화택의 불을 끄

고, 병들어가는 중생계를 구원하기 위해 8만4천 진리의 법을 펴셨다. 그 법이야말로 이 땅의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요 명약이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두고도 병은 점점 깊어가고 환부는 넓어지고 있으니 누구를 향해 무슨 말을 해야할

지. '깨달음의 사회화' '상구보리·하화중생'이란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사후서원을 되풀이 다짐하는 우리 불자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 약을 알고 있으면서

환자에게 일러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 부처님법을 널리 펴는 일이야말로 자연스런 '청정사회' 운동이다. 부처님께서 철보로 국토를 장엄하기 보다 법을 펴는 공덕이 크다고 하신 이 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청정사회·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부처님 오신날 5월에 불자들은 의무적으로 법을 전하자. 만화·동화·교과서, 소설, 법어집, 비디오·오디오테이프 등 부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인색하지 말자. 내 식구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면 우리 사회는 5월의 신록처럼 푸르러질 수 있으리라.

새싹들 자랄 위한 부처님 말씀 친구 사귀는 법.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이치를 따르지 말라. 사람이 본래 약한 것은 아니지만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어느 경에 나쁜버릇이 들어 깊이 어둠속에 갇히게 되느니라. (중요약장경) 미술포구 일공정사 대표 여규평 TEL.(02)733-2325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아름다움을 토사린 가람 동기와

귀의 삼보하옵고 손끝에 물들은 분홍빛 연잎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이 목전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국민적 축제 행사에 여념없으신 사부대중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가람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 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아름다움을 토사린 가람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5월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 가람 동기와의 장점 및 특성 1. 반 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눈과 한파로 인한 동파가 발생하지 않고 풍우로 인한 흙의 흘러내림 (지붕의 이물질, 잡초의 뿌리, 이끼등)으로 인한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의 목재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평당 기와의 중량이 45kg으로 가볍고 암기와 숫기와는 30장씩(1평당 소요량) BOX로 포장되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색상은 적동색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지붕에 덧집을 짓고 아스팔트 펠트(25kg이상)를 깔은후 동기와를 조립하여 시공하며 신축의 경우 서까래위에 송판(이대)을 깔은후 단열재를 이용하여 단열을 한후 내수합판으로 덧집을 짓고 동기와를 조립 시공한다.

가람 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 동기와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 전부분 공정을 대리점 하청없이 제작, 설계,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02)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건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 (02) 720 - 5121